

'자연의 숨결'로 한중을 잇다

김정숙 교수, 베이징 슈용미술관서 대규모 초대작품전시회 개최... 100여 점 작품 전시

국립군산대학교 미술대학에서 30여 년간 후학 양성에 힘쓴 김정숙 교수가 정년 퇴임 후 첫 행보로 예술의 본고장 중국 베이징에서 대규모 전시회를 열어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김정숙 교수

오는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베이징시 슈용미술관(Shuyong Museum)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중의경(韓中意境)'을 주제로 김 교수의 평생 예술 철학이 담긴 대작 100여 점을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이다.

김 교수의 이번 전시회는 슈용미술관 대부분의 전시관을 사용하는 파격적인 규모로 진행된다.

김 교수는 이번 전시를 위해 100호와 300호에 달하는 대작들을 포함해 총 100여 점의 작품을 5톤 컨테이너에 실어 보냈다.

전시 핵심 키워드는 '자연, 생명, 상승, 순환'이다.

김 교수는 한국 채색화의 전통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하여, 대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마그마와 같은 생명의 에너지를 '산' 시리즈와 '갯벌' 작업 속에 담았다.

특히 중국 간수성 등지에서 느낀 장엄한 자연의 기운을 '기운생동(氣韻生動)'의 미학으로 풀어낸 작품들은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동양 미학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확장했다"는 높은



중한·의경 김정숙 현대미술전 포스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개인전을 넘어 양국 예술인들이 하나 되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개막식에는 대한민국 중국대사인 노재현 대사를 비롯하여 베이징 지역의 주요 공산당 대표 및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김 교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참여이다. 국립군산대학

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아 중국 각지 미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45명의 중국인 제자들이 스승의 첫 북경 개인전을 축하하기 위해 길게는 9시간씩 적게는 2~3시간씩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모일 예정이다.

한국에서 건너가는 20여 명의 제자와 예술계 인사까지 합쳐 약 65명의 지명된 예술계 인사들이 합류하며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중 예술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행사 기간 중에는 김정숙 교수의 예술세계를 심도 있게 조명하는 두 차례의 세미나도 마련된다.

전시 첫날에는 한중 문화교류의 미래를 논하는 세미나가 열리며, 이튿날에는 베이징 주요 갤러리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김 교수의 작품 세계에 대해 토론하는 학술적 자리가 이어진다.

김정숙 교수는 이번 전시회를 열어 "30여 년의 교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전업 작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번 전시회가 매우 벅차다"며, "이번 전시가 한국과 중국이 같은 자연을 바라보며 예술로 공명하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달빛이 전산을 비추듯 예술로 양국을 잇는 이번 '한중의경(韓中意境)' 전시는 한중 수교의 정신을 인문적 교류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보로서 양국 예술계에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세계 고전 희극, 새로운 시선으로 해석

전주시립극단 정기공연 '파르튀프', 19~21일 덕진예술회관에서 개최

전주시립극단(예술감독 겸 연출 이수인)은 19일부터 21일까지 덕진예술회관에서 제134회 정기공연인 '파르튀프'를 선보인다.

공연은 3일 동안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에 각각 진행된다.

이번 작품은 프랑스 고전 희극의 거장 몰리에르(Moliere)의 대표작 '파르튀프'를 전주시립극단만의 시선으로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위선적인 신앙과 권력, 인간의 욕망을 날카로운 풍자와 유머로 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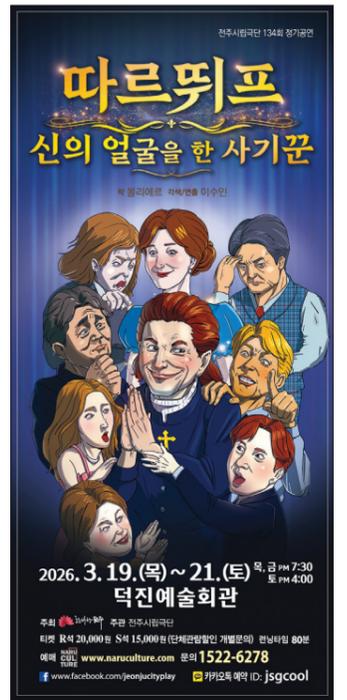
이야기의 배경은 부유한 귀족 오르공의 집으로, 그는 교회에서 만난 '파르튀프'를 경건하고 신실한 인물로 믿고 집으로 데려와 성자처럼 떠받든다. 그러나 오르공의 가족들은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의심하고 경계한다.

오르공은 가족들의 말을 믿지 않고 파르튀프를 더욱 신뢰하며 딸 마리안느를 결혼시키려 하고 재산까지 맡기려 한다.

이후 파르튀프가 오르공의 아내 엘미르에게 접근하면서 그의 위선이 드러나고, 오르공은 뒤늦게 진실을 깨닫게 된다.

전주시립극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고전 희극이 지닌 풍자와 유머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며, 웃음 속에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이번 공연은 전주시립극단이 세계 고전 희극을 현대적인 무대로 풀어낸 작품"이라며 "시민들이 공연을 통해 웃음과 함께 연극의 재미를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연 입장권은 R석(2만 원) S석(1만 5000원)으로, 나무컬처 누리집(www.natureculture.com) 또는 전화(1522-6278)로 구매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기억의 공명, 선율의 흔적' 사제동행전 열린다

순창공립미술관, 자연주의 회화 거장 故 박남재 화백·이세하 작가 기획초대전

순창군은 오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한국 자연주의 회화의 거장 故 박남재 화백과 이세하 작가의 기획초대전(사제동행전) '기억의 공명, 선율의 흔적'을 개최한다.

순창공립미술관 본관(육천골미술관)과 기획전시실(삼진강미술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두 전시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스승과 제자가 예술적 정신을 공유하며 이어온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 기획전이다.

기획전시실에서는 故 박남재 화백의 작품을 중심으로 자연주의 회화의 깊이 있는 세계를 소개하고, 본관에서는 이세하 작가의 작품과 함께 두 작가의 예술 세계가 공명하는 사제전 형식의 전시가 마련된다.

故 박남재 화백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 온 한국 자연주의 회화의 대표 작가로, 강렬한 붓질과 생동감 있는 색채를 통

해 자연의 생명력과 시간의 흐름을 화면에 담아왔다.

이러한 스승의 예술 세계는 제자인 이세하 작가의 작업에도 중요한 기반이 됐다. 이세하 작가는 클래식 음악의 구조와 리듬에서 영감을 받아 이를 조형 언어로 풀어내며 자연과 생명, 존재의 관계를 탐구하는 회화를 선보이고 있다.

또한, 바이올린과 더블베이스 등 현악기의 구조적 요소가 화면의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며, 작품에서는 자연의 생명성과 음악적 구조가 결합된 독창적인 조형 세계가 펼쳐진다. 대형 회화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과 변형을 거듭하며 음악적 리듬감을 담아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스승의 예술 세계에 영향을 받아 제자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은 물론, 한국 회화의 정신적 계승과 확장을 함께 살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공립미술관(063-650-1638~9) 또는 삼진강미술관(063-650-164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스테디셀러 뮤지컬 '넌센스' 21일 공연

군산예술의전당이 오는 21일 소공연장에서 대한민국 최대 공연 기록을 보유한 최정수 뮤지컬 '넌센스'를 오후 3시와 7시, 하루 2회 무대에 올린다.

뮤지컬 '넌센스'는 미국의 극작가 덴 고긴(Dan Goggin)이 집필·작곡·연출한 작품으로 1985년 미국 초연 이후 전 세계에서 공연되며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코믹뮤지컬이다.

공연의 주요 내용은 뉴저지의 한 수녀원에서 야채 스프를 먹은 수녀 52명이 식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시작된다.

장래 비용이 부족해진 수녀원에서 살아남은 원장 수녀와 수녀들이 카드 판매와 자선 공연을 통해 장례비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벌어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특히 '넌센스'는 탄탄한 스토리와 개성 넘치

는 캐릭터, 배우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코믹 연기, 그리고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객석 참여 이벤트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한국에서는 1991년 초연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공연되며 누적 관객 10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대한민국 대표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연 역시 실력과 개성을 겸비한 배우들이 선보이는 유쾌한 무대와 재치 넘치는 대사, 신나는 음악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웃으며 즐길 수 있는 힐링 코미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지컬 '넌센스' 공연은 티켓링크에서 R석 2만원 S석 1만원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누리집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